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은유한 자가 복이 있다

(시편 37:1-11)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중 ‘점진적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에 말씀한 것이 신약에 와서 완성되는 것을 계시의 점진성(Progressive Revelation)이라 합니다. 가령 구약에서는 죽음에 대해 말씀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죽음 넘어 천국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복음의 초점을 천국에 맞추시고, 사도 바울 역시 천국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속죄교리에서도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신약에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영적 출애굽을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바치고 속죄를 받았으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단 번에 죽으심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점진적 계시가 나타납니다.

시편 37편은 점진적 계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시편 37편은 9, 11, 22, 29, 34절에서 무려 다섯 번이나 ‘의인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 할 것임이요”(마 5:5)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7:11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천 년이 지난 후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오히려 해설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고통이 있으나, 없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합니다. 소위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그러나 의인의 고난은 짧고 악인의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의인의 고난은 길어야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고, 악인의 고난은 영원합니다. 반대로 악인의 형통은 짧으나 의인의 형통은 영원합니다. 시편 37편의 4, 5, 16, 25절 등은 잠언과 같은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악을 쓰고 자기만 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득세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시편 37편은 은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긴다고 말씀합니다.

1. 누가 은유한 자인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1절).

시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은 3번이나 반복된 본편의 주제입니다(1,7,8절). 불평은 악을 만들 뿐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를 영어성경에서는 ‘do not get heated’라고 해석합니다. 의인을 회성 제물로 삼고 악인이 득세할 경우에 의인은 더욱 괴롭습니다. 본편은 3-11절에서 이에 대해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위를 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을 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 눈을 감고, 심지어 자신에 대해서도 눈을 감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본편은 하나님 지식과 사랑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① 여호와를 의뢰하라(3절).

의뢰하라는 것은 믿으라는 말입니다.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점

입니다. 믿는 것은 수동적이면서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인간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3절)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새사람이 되고, 새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그래서 중생 없는 칭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으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아는 지식에 동의를 해야 하고, 동의된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모두가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② 여호와를 기뻐하라(4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까지 창조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보존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덕주의자, 엄격한 규범으로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자기 목적만 이루어 즐기려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경외해야 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과 동정과 친절의 완성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복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히 11:5). 동행했다는 것과 기뻐했다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하나가 히브리적 표현이라면 또 하나는 헬라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어리석게 소원한 것까지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③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5절).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는 것은 그를 의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맡기라’는 말은 ‘굴리다(roll)’는 뜻입니다. 우리의 어깨 위에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로 굴러 보내라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벤전 5:7).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을 그 날에 족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000421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بل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워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워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로

- 성찬예식 · 공동의회 · 순결서약식 -

2007년 신년 첫 주일인 오늘 우리교회는 '신년감사 예배'로 드린다. I, II, III부 예배 시간에는 성찬예식을 거행하고 신년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모든 성도들은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출발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은혜 중만한 2007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2007년도 순결서약식이 거행된다. 참여하는 이들은 우리교회 등록교인중 13세 이상된 미혼의 젊은이들로 오늘의 서약을 통해 결혼 전까지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말씀 안에서 순결하게 관리하

여 온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한다.

오늘 서약을 하는 이들에게는 서약을 기억하도록 후 원자와 부모의 지원으로 반지가 주어진다. 순결서약식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정직, 질서, 사랑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이종운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1995년 첫 주일에 서약식을 개최한 이래 13년째 계속 거행하고 있다.

찬양예배 후 예 · 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가 열린다. 기도하면서 등록된 세례교인은 모두 참여한다.

2007 청지기 수련회

-박노철 목사를 주 강사로-

2007년 청지기 수련회가 2007년 1월8일(월)-13일(토)까지 6일간 매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열린다.

박노철 목사(구리 지주촌 교회)가 강사로 '청지기에 게 항상 있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인도한다. 박 목사는 캐나다 토론토 요크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원을 졸업(M. Div.)하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D. Min) 과정 이수 중이다. 젊고 신선한 새 시대의 목사가 신년 초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해 본다.

새벽기도회 후 6시부터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담당교역자들의 인도로 청지기 수련회가 진행된다.

구분	1/8(월)	1/9(화)	1/10(수)	1/11(목)	1/12(금)	1/13(토)	1/14(주일)
05:00-06:00	특별새벽기도회(강사:박노철 목사)						청지기 헌신 예배 및 제직 수련회 (찬양예배)
	믿음 (창 22:1-5)	소망 (행 2:16-18)	사랑 (요 1, 4:7-11)	기도와 말씀 (왕상 18:41-46)	진정한 행복의 이유 (시편 23편)	새일을 행하는 여호와 (사 42:15-20)	
06:00-06:30	종직자의 사경과 자세 한상은 목사	예배위원의 역할과 자세 윤영국 목사	교회학교 교육과 운영 이태훈 목사	전도와 선교를 통한 교회부흥 서명철 목사	교구 일꾼의 역할 이규경 목사	섬김을 통한 교회중사 정수길 목사	청지기 전원
대상	장로/권사 /집사	예배위원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	선교위원회/전도위원회	교구일꾼	목회자신학세미나 /멀티미디어/순례자/차량봉사직원	

성경 천독 대장정 시작한다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되도록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은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되었다. 대부흥운동 100주년의 뜻 깊은 해에 우리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는 말씀읽기에 주력하여 올 한 해 동안 1인 1독 이상을 하되 적어도 1,000명의 성도들이 성경 1,000독을 하는 대장정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성도 여러분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1독 이상 한 경

우, 교회내에 설치될 한반도 지도 위에 통독자의 이름을 스티커로 붙여 기념케 한다.

Spiritual Revival Again

-Centennial Anniversary of 1907 (1907-2007)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서 민족을 깨우는 우리 교회"

특별 심방 시작된다

일년 이상 병상에 있는 노약자 대상으로

일년 이상 병상에 누워 교회 출석을 못하고 있는 분의 특별 심방이 년초에 이종운 목사에 의해 시행된다.

해마다 노약자에 대한 특별 심방은 1월과 2월에 시

행되며 구원 체크와 함께 환자에게는 큰 위로의 시간이 된다.

예배시 사용하는 주기도송 가사 일부 변경 '대개'를 '주여'로

우리말로 잘못 번역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우리 교회의 제안으로 재번역을 현의하여 지난 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전격 통과된 바 있고 우리교회는 현재 새번역 주기도 ·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교회 예배시간에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가 다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주기도송은 이전의 잘못된 번역을 계속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교회는 신년을 맞이하여, 전체 가사를 새로 붙이기는 어렵지만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대개'란 단어를 '주여'로 바꿔 사용하기로 하였다. '대개'로 번역된 헬라어(ὁτι)는 ~때문에 라는 뜻으로 짧은 주기도에서는 생략한다.

오늘부터 모든 성도들은 힘차게 '주여'를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에바다부 수화교실 개강

에바다부 수화교실이 1월 14일(주일)에 개강한다. 초급반은 609호에서 중급반은 606호에서 매 주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 관심 있는 성도 여러분의 참여를 바란다.

군복무자를 위한 기도회

비전2020 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는 군복무 중인 청년성도들을 위한 새해 첫 도교 기도회를 오늘 오후 3시30분 901호실에서 갖는다.

농어촌 100교회 후원 현황

지난 주에 발표된 명단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0.5구좌>

3-25다락방/김병호/김점숙/김치삼, 광미숙/박태선/백종명, 송인숙/송명근/송행희/오교식, 김은순/이지은/조정옥/한영철/한정택, 장은영/황경신/1-12다락방/김정호, 정금희/이인수/이정운, 신현이/조순엽/고석규, 한치중/예사모/이영기

<1구좌>

곽숙,전용택/김상식,이순례/김은태,전하미/김종윤,이종돌/김태삼, 조숙자/노병호, 홍지나/박순옥/박정수, 김경옥/박찬성, 심명숙/배재승, 임분도/백남운, 김자희/양득춘, 최혜인/여유현, 양미숙/오병승, 박신자/윤태욱, 박순복/이갑진/이동귀/이재운, 이민호/전수자/정경월/정철웅, 오선혜/조동완, 이순희/진 돈/최공천, 이정희/최규초, 노순례/필그림족구선교단/홍승전, 황정임/홍일성, 이명아/황병석/김상철, 최원자/박성빈, 박우빈/박정란/사랑의회/새가족부/이승래, 김정희/이진구, 이수련

<2구좌>

모세선교회/하나여전도회/할렐루아찬양대

<3구좌>

보비전도회/에스더전도회

※농어촌100교회 후원 봉투는 2층 새가족 환영실 앞에 비치되어 있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영향 그리고 그 현재적 의의(I)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의 뜻깊은 해인 2007년 새해가 밝았다. 장신대 김인수 교수(역사신학)의 허락을 얻어, 저자의 글「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영향, 그리고 그 현재적 의의」를 발췌하여 3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부)

I. 서론

기독교 역사는 선교의 역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교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데서 맺어진 결실이다. 성령의 역사는 주로 부흥운동에서 비롯된다. 교회 역사를 더듬어 보면 부흥운동에서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은 한국교회가 그 틀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이를 통해 교회는 크게 성장하였고, 조직이 확대되었다. 이 운동은 1903년 원산에서 사역하던 남감리회 소속 선교사 하디(R. A. Hardie, 1895-1949)로부터 발단 되었다. 그의 통절한 참회의 사건이 차차 번지면서 급기야 4년 후인 1907년, 평양에서 모인 남자사경회에 성령의 불길이 떨어져 한국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부흥운동은 선교사들이 불을 붙였고,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특히 길선주 목사에 의해 승계,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03년 평양부흥집회장면



1903년 평양부흥집회장면

II. 대부흥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준비과정

1. 정치·사회적 배경

평양에서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던 즈음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환경은 순탄하지 않았다. 약소국 조선은 20세기에 들어와서 힘이 다스리는 냉엄한 국제 질서가운데 비극적인 역사를 맞게 된다. 명성황후 시해사건, 을사늑약, 통감부 설치, 정미7조약에 의한 경찰과 군대의 해산, 고종황제 강제 퇴위 등 일련의 일제침탈 과정을 통해 조선왕조 500년은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였다. 아울러 계

속되는 흉년과 기근, 역병과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극도로 황폐해졌다. 이런 육체적 탈진은 영적 고갈을 심화시켰고, 종교적 본능은 새로운 종교운동의 출현을 갈망하게 되었다. 1907년 부흥운동은 이러한 정치, 사회, 경제, 사상적 혼란에서 비롯되었다. 나라 잃고 서럽게 울고 있던 백성들에게 교회는 새로운 영적 동력으로 일어서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었으며, 부흥운동은 다가오는 일제의 폭압에 맞설 수 있는 영적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2. 교회적 배경

1) 선교사들의 성경공부

1903년 함경남도 원산 지방을 방문한 남감리회 중국선교회 소속 화이트(Mary C. White)와 캐나다 장로회 소속의 다른 여선교사 두 사람은 현지에서 선교하고 있던 캐나다 선교회 소속의 맥컬리(Louise H McCully) 선교사와 더불어 한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영성을 강화시켜 달라며 간절한 합심기도를 드렸다. 이 소식을 접한 이 지역의 선교사들은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한 주간을 특별기도주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갖기로 결의하였다. 1898년부터 이 지방에서 선교하고 있던 하디 선교사는 특별기도주간에 글을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준비하였는데 처음에 그는 “나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는 한국 교인들이 진정한 참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교안을 준비하다가, 오히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선교사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는가?”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하디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사회의 확신을 얻은 후에 동료 선교사들과 한국인 교인들 앞에서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심정으로 내 자신의 교만함과 신앙 없음, 그리고 이렇게 되어 버린 나의 잘못을 고백한다”라고 자백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디의 적나라한 죄의 고백과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체험하는 것을 목도하고 그들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어 부흥의 불길이 서서히 불기 시작하였다. 하디의 이런 참회 경험은 1907년 대부흥운동에 불을 붙인 도화선이 되었다.

부흥운동이 원산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어 가던 중, 이 소식을 접한 평양의 선교사들이 하디를 초청하여 1906년 8월에 장로회, 감리회 연합 집회를 갖게 되었다. 이어서 9월에는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원이었던 존슨 목사가 선교사들에게 설교하면서, 한국 교인들과 지도자들에게 인도와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였다. 선교사들과 한국 교인들은 그에게서 많은 영감을 얻었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였다. 이듬해인 1907년 1월 5일부터 시작된 장로회 사경회를 통해 낮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900여 명의 남자들이 성경공부를 하였고, 저녁에는 여러 교회에서 온 1,500여 명의 남자들이 모여 전도집회를 하였다.

2) 길선주 장로의 새벽기도

1907년 대부흥운동의 중심에는 길선주 장로가 있었다. 그는 “조선 기독교의 아버지” 또는 “가장 위대한 한국 개신교 인물 중의 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는 인물로 부흥운동의 중요한 준비 단계에 새벽기도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었다. 그는 기독교에 입문하기 전에 관성교(關聖敎)와 선도(仙道)에서 행하는 새벽예불을 일상적으로 해왔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그의 새벽기도는 계속되었다. 1906년부터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친구인 박치록 장로와 시작한 규칙적인 새벽기도에 약 300-500명이 매일 동참하게 되자, 장대현교회 시무장로이던 길선주는 당회의 허

평양 장대현 교회 전경



락을 받아 공식적으로 모이기 시작하였다. 이때가 1906년 가을의 일로, 우리나라 새벽기도회가 비롯된 시점이기도 하다. 바로 이 새벽기도 모임은 대부흥운동의 밑거름과 기초가 되었고, 기도로 준비된 교인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닿은 것이다. 하디를 중심한 선교사들의 기도와 성경공부 모임, 그리고 길선주를 중심한 한국교회의 새벽기도와 말씀 훈련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1907년 대부흥운동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1907년 정월, 평양 장대현교회에 모인 남자 사경회에 성령의 불길이 떨어짐으로써(정확히는 1907년 1월 14일 - 편집자 주), 본격적인 부흥운동이 촉발하였다.



김인수 교수(장신대)

찬양예배 - 명실공히 찬양예배로

- 오늘 Musica Anima 초청 연주 -

우리교회는 '문화의 기독교화'와 관련 하여 새해 부터 찬양 예배 시 찬양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다. 종전의 예배 형식에 더하여 10-15 분가량의 특별찬양 순서가 들어가며 그 내용은 독창, 다양한 형태의 중창, 기악 합주 등이다.

오늘 찬양예배 시는 Musica Anima의 초청 연주가 있다. 2002년에 창단된 Musica Anima는 바하 작품을 중심으로 교회음악만을 연주하는 크리스천들로 구성된 특수 음악 단체이며 우리교회 음악감독인 이영 조 집사가 음악감독 직을 맡고 있다.

특히 오늘 저녁 사용하는 악기들은 1600년대의 고악기 그대로 사용하며 이는 귀중한 음악사적 사료가 되는 연주가 될 것이다. 현악기들은 그 모습이 현대 악기들과 조금 다르며 악기의 줄도 강철이 아닌 양의 힘줄 등을 사용하여 그 음향에 있어 보다 미세함을 가지고 있다.

▶ 연주곡

Dietrich Buxtehude(1637-1707) 작곡인 칸타타 "예수 나의 기쁨" 전 6곡으로 현악 삼중주와 오르간이 함께 펼치는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의 삼중창이 연주된다.

북스테후드는 북독일 뤼벡시의 St. Maria 성당의

음악 감독으로 40 여년을 지낸 오르가니스트이자 당대의 작곡가로 바하, 헨델, 비발디 와 같은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들이 젊었을 때 추앙 하던 신앙심 깊은 음악가이다.

▶ 연주자

- 소프라노 : 최훈녀 (할렐루야 찬양대 솔리스트/동 의대 교수)
- 알토 : 김정희 (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한국예술 종합학교 겸임교수)
- 베이스 : 임민철 (연세대 교수)
- 오르간 : 오자경 (할렐루야 찬양대 오르가니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바이올린 1 : 김진 (고음악 협회 단원)
- 바이올린 2 : 김지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 비올라 다감바 : 강효정 (고음악협회 단원)
- 지휘 : 김성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2007 새해 첫 주부터 아침 예배 찬양 시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전면 스크린에 자막으로 처리 됩니다. 이는 모든 회중이 그 찬양의 내용을 인지하여 함께 동참 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 신간 안내 ■ - 시편 2권 발간 -



이종운 목사의 역작 시편 2권이 발간되었다.

본 권은 지난 해 발간된 시편 1권(시편1편-41편)에 이어 시편 42편부터 106편까지를 다루고 있다.

신약 성경학자인 저자의 깊이 있고 다양한 해석 제시와 더불어 강해설교의 진수를 책으로 만날 수 있다.

다.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에서 19학기부터 28학기까지 만 5년 간 매주 월요일 강의한 시편은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기에 충분하다. 시편은 총 3권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가격은 18,000 원으로 시중 서점이나 우리교회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동정

- 정애신 선생(11교구, 장년5부교사) 믿음의문학지에서 2006년 신인상 (동시부문) 수상.
- 득녀(9교구) 김규원 집사, 이지혜 성도 가정
- 득남(1교구) 홍성모 성도, 노은아 성도 가정
- 개업(13교구) 조동완 집사 이순희 권사 한석당 '삼손' 개업
T. 010-7301-3033
(1교구)이은경집사, 이은경의 행복한국(대치동) 그래픽디자인 102호, 555-9953)
- 주간식당 봉사 : 도르가전도회(1.7) 루디아전도회(1.14)
- 금주의 식사 : 재정위원 일동(범사에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2007년 순결서약식

몸과 마음을 순결케 하여 ...

이루리(중등부)

이번에 순결서약식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작년 1월부터 교회를 다니며 순결서약식이란 것이 있는 지도 몰랐다가, 언니의 손가락에 끼여져 있는 순결반지를 보고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그 당시 저도 순결서약식을 하고 싶었지만 서약식이 이미 끝나서 다음해에 해야 한다고 언니가 안타까운 듯이 말하였습니다.

저는 올해에 있을 순결서약식이란 단어를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며 일 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순결서약을 할 사람은 신청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신청을 하였고 순결서약식을 하기 전에 하는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15살이라는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한층 더 성숙하게 자라는 중요한 나이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드실때 할일도 잘 하고 주님도 잘 섬기고 또한 마음과 몸가짐이 바른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만드셨을 것입니다.

15살이 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저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더욱 삼가고 조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나밖에 없는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 의지 만으로는 불가능하기때문에 주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주님과 약속을, 믿음과 크고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순결반지로 지켜나갈 것을 맹세합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되도록
2. 공동의회 · 순결서약식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3. 북한에 신앙자유가 있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